

제39차 태풍위원회 총회 참가기



노재화 |
한강홍수통제소 소장
nojh21@moct.go.kr



정해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chm7@moct.go.kr



김혜린 |
한강홍수통제소 토목연구사
kimhr@moct.go.kr

1. 개요

2006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39차 태풍위원회(The 39th Session of ESCAP/WMO Typhoon Committee) 총회가 개최되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에 의한 피해 경감을 위해 태풍 업무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지역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68년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라오스, 필리핀, 태국의 7개국으로 발족하여 2006년 현재 한국,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14개국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수문, 기상, 방재 분야별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연례회의인 본 총회에는 14개 회원국 중 11개국 70여명과 UNDP, UNESCO, ICAO, ESCAP 등의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39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의 주요 사항은



그림 1. 제39차 태풍위원회 총회 각국 대표단

다음과 같다. '06년 9월 수문분과 워크숍(마카오)을 비롯하여 아국 건설교통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역협력계획(RCPIP : Regional Corporation Programme Implementation Plan)과 관련하여 '07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가별로 추진 중인 수문분과 프로젝트에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홍수에보모형의 성능평가 및 개선, 홍수기 저수지 운영을 위한 지침서 작성, 홍수에보시스템의 평가기법 개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진보된 기술의 개발과 지침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보다 나은 재해관리가 가능토록 논의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홍수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예방대책 수립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2. 총회 개회식



그림 3. 수문분과 회의

향후 5개년에 대한 새로운 지역협력계획(RCPIP) 토의 내용에 대해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고 향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간 운영 및 전략 계획과 '07년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7개 핵심결과분야(Key Results Areas: KRAs)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태풍위원회 사무국이 필리핀에서 마카오로 이전하는 협약 조인식 이전 대표단의 배석 하에 거행되었다.

· 7개 핵심결과분야

(Key Results Areas: KRAs)

- KRAs 1: 태풍관련 재해로부터 인명손실을 경감
- KRAs 2: 태풍관련 사회 경제적 영향의 극소화
- KRAs 3: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풍이 수반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
- KRAs 4: 다양한 분야에서의 태풍관련 재해 위험 관리를 향상
- KRAs 5: 태풍 관련 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능력 강화
- KRAs 6: 태풍관련 위험에 대하여 적시에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능력 향상
- KRAs 7: 태풍위원회 효과적인 국제협력 강화

2. 제39차 태풍위원회 일정 및 주요 내용

제39차 태풍위원회 총회의 주요 내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위원회 활동보고와 2007년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과학 강연으로 마닐라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모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2월 4일 개회식은 필리핀 과기부장관Dr. Alabastro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PAGASA 청장대리 Dr. Nilo, 마닐라 시장Mr. Atienza Jr., UNESCAP 대표Dr. Ti, WMO 아시아국장Dr. Toya의 축사가

표 1. 제39차 태풍위원회 총회 일정

일 자	회의 일정
12월 4일	개회식 임원 선출 협의사항 채택 수문, 기상, 방재분과 실무그룹 동시 세션 - 의장/부의장 보고, 회원국 각 지역의 보고 2006년도 태풍시즌 평가 - RSMC 동경태풍센터의 2006년 태풍시즌 요약 - 각 회원국의 2006 태풍 시즌 보고 - 북서태평양 최선의 단일 진로데이터에 대한 보고
12월 5일	2006년도 위원회활동 보고 - ESCAP 대표 - 태풍위원회 사무국 - 제3차 워크숍 보고(중국 남해지역 해양예보 실시훈련 실험실) - 각 회원국
12월 6일	2006년 태풍시즌/연간 간행물 평가 - 태풍운영 매뉴얼 수정 - RSMC도쿄태풍센터 활동 보고 WMO 열대성 저기압 프로그램의 활동과의 연계 - 열대성저기압(사이클론)의 효율적인 조기경보에 대한 전문가 회의 - RSMC동경태풍센터의 태풍운영예보 훈련
12월 7일	2007년도 및 향후 프로그램 전략계획, 년운영계획, 예산안 이행의 진행에 대한 보고
12월 8일	위원회 프로그램이 요하는 지원사항 제40차 총회 장소 및 일정 결정
12월 9일	과학강연
12월 10일	과학강연 최종결론 및 보고 보고서 채택 폐회식

이어졌다.

개회식 후 수문분과, 기상분과, 방재분과회의가 동시 세션으로 운영되었고 본 고에서는 수문분과의 활동사항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수문분과 회의 의제는 2006년 수문분과 활동 경과보고, Working Group 의장단 선출, 2006년 수문분과 활동 보고서 작성, 향후 5개년 신규 지역협력계획(RCPIP) 추진 등으로 일본의 Katsuhiko Miyake를 수문분과 Working Group 의장, 아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일표 박사를 부의장, 중국의 Zhiyu LIU 박사를

Secretary로 유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RCPIP의 로드맵의 작성에 관한 각 국의 진행상황에 대해 각 국가별 로드맵 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차후 5개년 신규 지역협력계획(RCPIP)은 태풍으로부터의 사망자수 감소, 태풍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최소화, 삶의 질 향상,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소와 모니터·평가·판정, 교육과 훈련·공공의 인식을 통한 재난 준비와 복구능력 수립, 태풍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및 가시성 증대 등 6가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되어졌다. 이어 홍수 및 태풍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와 재해관리 부문의 연결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Asia Pacific Water Forum(APWF) 참가 보고가 있었다.

분과회의가 끝나고 바로 시작된 실무그룹 전체회의에서는 수문분과, 기상분과, 방재분과별로 분과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2006년도 태풍시즌 평가가 이루어졌다. 동경태풍센터에서 금년에 발생한 총 21개의 태풍 현황에 대한 요약과 각 회원국의 2006 태풍시즌 보고를 끝으로 다소 빡빡했던 첫날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튿날인 12월 5일에는 2006년 태풍위원회의 활동 보고 발표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ESCAP 대표와 태풍위원회 사무국에서의 보고가 있는 후 각 회원국 대표들이 수문, 기상, 방재분과별로 지난 회기 동안의 활동 사항을 보고로 11개 회원국별(한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국가보고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12월 6일에는 RSMC-Tokyo 소장인 Dr. Mannoji의 태풍 운영 매뉴얼(TOM, Typhoon Operational Manual) 수정, 보완에 대한 발표 및 RSMC 도쿄 태풍센터 활동보고로 2006년 태풍시즌·연간 간행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어 WMO 열대성 저기압 프로그램의 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보고가 수행되었다. WMO 열대저기압 과장인 Dr. Kuroi의 WMO TCP(Tropical Cyclone Program) 활동 보고 이후 사이클론의 효율적인 조기 경보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고 RSMC 도쿄 태풍 센터의 태풍운영예보훈련 사항에 보고도 실시되었다. 2007년도 및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전략 계획, 년 운영 계획, 예산안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간의 새로운 지역협력 프로그램 (Regional Corporation Programme Implementation Plan: RCPIP) 이행과 진행에 대



그림 4. 아국 수문분과 발표



그림 5. 태풍위원회 사무국 이전 협약 서명식



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총회 나흘째인 12월 7일에는 어제에 이어 2007년도 및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구성 요소, 태풍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개선방안, 세계기상기구의 태풍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였고, 공동 기술협력사업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TCS와 조정 WG의 협의 사항은 다음 총회 석 달 전에 회원국에게 회람되며, 회원국은 협의 사항에 대해 숙지하기를 요청하였다. 오찬이 있기 전 Champagne Room에서 태풍위원회 사무국 이전에 따른 협약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태풍위원회 사무국이 필리핀에서 마카오로 이전하는 협약 조인식은 현 태풍위원회 의장인 필리핀 기상청 청장 대리 Dr. Nilo와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 Mr. Hon. Li Tinjun 사이에 서명식이 전 대표단의 배석 하에 거행되었다.

오찬 이후 위원회 프로그램이 요하는 지원사항에

대해 협의하였고, 회의의 주된 의제는 2006년의 태풍위원회 자금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이었다. 제40차 태풍위원회 총회는 2007년 11월 마카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2007년 1월 각 분과별 회의의 개최지 및 시기는 사무국을 통하여 해당 개최국과 논의한 후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12월 8일에는 과학 강연이 개최되었다. 과학 강연은 총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계속되었다. 6개국(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필리핀)과 2개 관련기관(UNESCAP, ADRC)에서 총 10개 과제가 발표되었고 아국은 기상연구소 태풍연구팀 추교명 선임연구원이 Recent Development of TC Prediction Models in KMA를, 방재연구소심재현 방재정책팀장이 Automated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using Spatial Image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과학 강연 이후에는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제39차 태풍위원회에 참석한 회원국 및 관련기관과 특히 총회를 개최한 필리핀 기상청과 사무국에 감사를 표시하며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3. 참가소감

제39차 태풍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던 지난 12월 1일, 회의 장소인 필리핀에 초대형 태풍 '두리안'이 강타하였고, 그 피해는 심각하여 다음날 필리핀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사망자가 천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마닐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재난을 강 넘어 불구경하듯 남의 나라 일이라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태풍에 의한 피해는 비단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상기후, 온난화 등의 원인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구 곳곳에 극한 태풍·홍수사태가 예년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



그림 6. 제39차 태풍위원회 한국대표단

년 태풍 '에위니아' 등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손실을 남긴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제 홍수네트워크(IFNet : International Flood Network) 등을 구축하여 인근 국가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본국의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제는 국제 협력 사업이 아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아국의 영향력을 보다 크게 행사했음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회원국 간 공유된 주요 정보는 널리 보급하여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추진된 연구의 우수한 성과들은 차후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 적용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아국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우리 기술을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전파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도미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도미노 피해는 지리적 특성으로 한 나라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인접국가로 그 피해가 확산되는 유럽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는 연결(Link)되고 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의 전쟁과 테러가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듯이 중국의 가뭄, 일본의 대지진 등 인근 국가의 재난이 아국에도 직·간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 협력 분야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